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주 임 신 부 정 재 준 사도요한

보좌 신 부 정 혁 요셉 (청년부)

이 춘 섭 미카엘 (유·초·중·고등부)

박 경 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정 은 자 한나 (원장)

이 민 자 미란다 (중·고등부/청년부)

정 정 아 소화데레사 (유·초등부)

총 회 장 황 태 영 프란치스코

연령회 회장 우성식 바오로 010-2899-4654

㉠ 전입교우 만남의 시간 (10월 전입)

- 일 시 : 11월 26일(일), 교중 미사 후
- 장 소 : 1교실

구역 반	성명	세례명	이전 본당
12구역 3반	노미양	스테파니아	서울대교구/구로2동
15구역 3반	김건우	베드로	수원교구/영통영덕
15구역 4반	이경훈	바오로	수원교구/산본
22구역 4반	이신복	펠릭스	대전교구/공주신관동

※ 각 구역·반장님은 연락하시어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성체분배자회	11월 26일(일), 교중미사 후	성체분배실
성모성심회	12월 2일(토), 17:30	강당
위령봉사회	12월 3일(일), 11:40	강당
M.E.	12월 3일(일), 11:50	6교실
제대헌화회	12월 5일(화), 10:30	2교실

㉢ 구역 미사

일시	담당 구역	장소
11월 28일(화), 20:00	23구역	강당?
12월 5일(화), 20:00	5구역	강당
12월 12일(화), 20:00	11구역	강당

㉣ 성시간 및 성체강복

- 일 시 : 12월 1일(금), 저녁 미사 후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 시 : 12월 2일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마리아’ 장영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교육 / 강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12월 4일(월), 10시
- ‘2024년 부활’ 세레반 모집
 - 주 일 반 : 일요일 오전 9시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화답송



주 - 님 은 나 의 목 - 자 아 쉼 을 것 없 어 라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 祝 세레 일정

12월 3일(일)	참고(교중 미사 직후)
12월 10일(일)	세례식(교중 미사 중)

㉧ 알림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다음주(12월 3일)는 국군장병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12월 8일(금)은 지역별 병자영성체가 있습니다.
- 매주 목요일 10시 30분 강당에서 시니어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 본당 사무장 인사 이동
 - 퇴임사무장 : 손남희 소화데레사
 - 신임사무장 : 이진희 사도요한

㉨ 다음 주일(12/3)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2구역	청소	9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1월 15일 ~ 11월 21일)

• 교무금		7,035,000원
• 주일헌금		4,739,000원
• 감사헌금	김창현10만원 이형순 5만원 도현만10만원 박홍민10만원 박노덕20만원 박재형30만원 이인화 5만원 채수풍20만원 채서연10만원 익명 5만원 강영숙10만원 최미희 5만원 안윤희 5만원 익명 5만원 김두현50만원 18구역 국수 잔치 나눔 5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11/26	권태희	김영균	김진수	유숙중	최상림	김덕영 정연희
12/3	황원선	심재순	신종구	도현만	장희석	최웅조 권태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11/26	최승일	박용환	이계명	오광운	김인기
12/3	최영만	박승환	이운영	이화봉	박형순

V. 세계적 불평등

48. 인간 환경과 자연환경은 함께 악화됩니다. 우리가 인간과 사회의 훼손의 원인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환경 훼손에 적절히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사실 환경과 사회의 훼손은 특히 이 세상의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생활의 체험과 과학 연구는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든 환경 훼손의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 개체 수의 감소는 다른 생계 수단이 마땅치 않은 영세 어민들에게 특히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수질 오염은 특히 생수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해수면 상승은 주로 해안 주변에 사는 달리 갈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이러한 불균형의 영향은 많은 가난한 이들의 이른 사망, 자원의 결핍으로 일어나는 분쟁, 국제적 논의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많은 다른 문제들에서 나타납니다.

49. 특히 소외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외된 이들은 수십 억 명에 이르러 인류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오늘날 국제적 정치와 경제 토론에서 언급되고는 있지만, 그들의 문제는 거의 의무감에 못 이겨 또는 미미하게 다루는 부록으로 제시되거나, 아니면 그저 부수적 피해로만 여겨질 수도 있다는 인상을 빈번히 줍니다. 사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서 보면 소외된 이들의 문제는 가장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 이유는 많은 전문가, 여론 선도자, 통신 매체, 권력의 핵심들이 부유한 도시 지역에 위치하여 가난한 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난한 이들의 문제에 거의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높은 수준의 발전에 따른 편안한 위치에서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삶의 질을 누리며 생활하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만남의 결여는 종종 도시의 해체로 촉발되며 양심을 무디게 하고 현실에 있는 것을 무시하는 편향된 분석을 낳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말로는 ‘환경’을 옹호하면서도 이러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참된 생태론적 접근은 언제나 사회적 접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접근은 정의의 문제를 환경에 관한 논의에 결부시켜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모두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